



세계 최대 IT·전자제품 박람회 CES 2022가 5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했다.

지구촌 혁신 기술의 향연... 'CES 2022' 막 올랐다

미국 이어 한국 기업 역대 최대 500여개 참가
오미크론 우려 MS·아마존·구글·메타 등 불참
삼성·LG·SK·현대차 등 신기술·미래사업 각축

2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돌아온 세계 최대 IT·전자제품 박람회 'CES 2022'의 막이 드디어 올랐다. 5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2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치러진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5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CES 2022'에서는 국내외 기업 2,200여 개가 참여한 가운데 사흘간 혁신적인 기술의 향연이 펼쳐진다. 특히 참가기업들 가운데 개최국인 미국 내 기업이 1,300여 개사로 가장 많았고, 한국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약 500개 기업이 참가해 눈길을 끈다. 이에 일각에서는 올해 CES가 한국 기업들의 열띤 기술 경연의 장이 될 것이라는 평가

도 나온다. CES 2022는 개최를 앞두고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대기업들의 현장 불참 선언이 이어지자 '반쪽짜리 행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아마존, 트위터, 메타(옛 페이스북), AMD, IBM, 파나소닉 등 글로벌 기업들이 참가를 취소하거나 디지털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함에 따라 참여 기업이 대폭 줄었다. 지난 2020년 1,200여 개사가 참여했던 중국의 경우 미·중 무역분쟁 등의 여파로 올해는 150여 개사가 참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한국 기업들은 이 같은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바꿔나가는 데 여념이 없

다. 올해 CES 현장을 찾아 부스를 마련한 국내 기업 수도 역대 최대 규모다. 삼성과 LG, 현대자동차 등 CES 단골인 한국 대표 기업들은 물론 국내 중견기업과 스타트업도 다수 참여해 전시장의 빈 공간을 채웠다. 즉 CES 2022 현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존재감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이번 CES 2022에는 양향자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조승래·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식·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5명이 참석해 이목을 끌었다. 의원들은 기업 부스들을 방문해 4차 산업혁명 최신 기술을 엿보는 동시에 국내에 꼭 필요한 정책과 법제도를 구상할 계획이다. 특히 CES 전시장 중 '유레카 파크'에는 한국 스타트업들이 대거 집결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83개 스타트업을 모아 '한국관'을 열었고, 서울시도 25개 스타트업

과 함께 '서울관'을 꾸렸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C랩 전시관을 마련해 임직원 대상 사내 벤처 프로그램인 C랩 인사이트 우수 과제 4개와 사외 스타트업 대상 프로그램인 C랩 아웃사이드로 육성한 스타트업 9 곳을 알린다. 개막일 당일에는 오전 8시 30분부터 진행된 개리 사피로 미국소비기술협회(CTA) 회장이 기조연설에 나섰다. 오전 9시에는 메리 바라 제너럴모터스(GM) CEO의 기조연설도 이어졌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의 한홍희 부회장(DX 부문장)이 유일하게 지난 4일 라스베이거스 베네치안 팔라조 볼룸에서 개막식 기조연설을 펼쳐 주목을 받았다. 6일에는 헬스케어 기업 가운데 최초로 애보트(Abbott)의 로버트 포드 회장이 연설을 진행한다. CES 2022 전시관은 6일과 7일 오전 9시부터 전시가 시작된다. CES를 주최 기관인 CTA 측은 CES 2022 전시에서 주



현대모비스가 공개한 콘셉트카.

목해야 할 주요 산업으로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메타버스, 자율주행, 로봇공학, 우주기술, 디지털 헬스케어, 모빌리티(이동성) 등을 꼽았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주목받고 있는 의료·헬스케어 분야는 이번 CES에서 신기술·신사업의 각축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AI타임스 제공·정리=이연수 기자



바디프랜드가 헬스케어 기술을 적용한 안마의자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파루인쇄전자 부스.



소니가 CES 2022에서 공개한 신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콘셉트카 비전S-02.

“더 이상 ‘안마의자’라 부르지 마세요”

바디프랜드, 미래 헬스케어 기술 적용 신제품 호응

안마의자가 첨단기술을 입고 '디지털 헬스케어 로봇'으로 진화하고 있다. CES 2022에서 바디프랜드는 헬스케어 기술을 적용한 안마의자 신제품을 선보여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바로 올해 CES에 출품해 혁신상을 수상한 '더파라오 오투(O2)' 제품이다. 바디프랜드 측은 "더파라오 오투는 단순히 마사지만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의료용 산소발생기에서 적용되는 최첨단 기술을 적용해 현대인에게 최상의 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안마를 받는 동안 인공지능(AI)과 빅

데이터, 사물인터넷(IoT) 기술 등을 통해 사용자의 신체 상태를 확인하고 깨끗한 산소도 공급해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준다는 설명이다. 또 양쪽 다리 마사지가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로봇 형태의 안마의자 '팬텀로보(Phantom Rovo)'도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직접 전시장에서 제품을 사용해본 관람객들의 얼굴에는 만족감이 스쳤다. '앉기'보다 '착용'하는 팬텀로보는 약 5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해 만든 미래형 헬스케어 제품이다. /AI타임스 제공·정리=이연수 기자

파루인쇄전자 '에너지 절감형 히터' 이목 집중

파루인쇄전자는 'CES 2022'에서 차세대 인쇄 필름히터 기술을 선보여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었다. 6일 파루인쇄전자에 따르면 전시 부스는 기업이 보유한 인쇄 필름히터 기술 소개부터 응용분야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체험·공감형 공간으로 꾸며졌다. 특히 지난 2017년부터 삼성전자에 공급해 온 세계 최초 은나노잉크 필름히터가 관람객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파루인쇄전자는 이날 인쇄 필름히터(냉장고용 히터)를 비롯, 전기차 냉각수히터, 반도체 웨이퍼(반도체 원료) 히터 등을 선보였다. 파루인쇄전자는 전기차에 적용되는

인쇄 히터 기술도 현장에서 공개했다. 인쇄 히터 기술은 알루미늄, SUS, 세라믹, 유리등의 기재에 얇은 막을 인쇄하는 방식이다. 절연잉크, 발열잉크, 전극잉크를 인쇄하고, 건조 공정만으로 제작 기재를 제작한다. 이 때 기재에는 발열체가 접착되어 발열이 균일하다는 장점이 있다. 인쇄히터에 사용되는 전극소재, 발열소재, 절연소재 잉크는 파루인쇄전자가 직접 제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재, 설계, 공정, 테스트까지 독립적으로 개발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해당 기술은 전기자동차에 적용될 수 있어, 향후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도 보였다. /AI타임스 제공·정리=이연수 기자

라스베이거스에 착륙한 '소니 전기차'

올 봄 모빌리티 통해 본격 전기차 시장 진출
자회사 설립...SUV 콘셉트카 '비전S-02' 공개

5일(현지시간) 미국라스베이거스에서 세계 최대 IT·전자제품 박람회 'CES 2022'가 개막한 가운데, 일본 전자업체 '소니'가 전기자동차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앞서 4일 CES 2022 기자회견에서 전기차 자회사 '소니 모빌리티' 설립을 발표한 것. 소니가 이날 함께 공개한 신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콘셉트카 '비전S-02'는 CES 2022 전시장을 방문한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소니 전기차의 특징은

자율주행을 비롯해 차량 안에서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비전-S 02'는 200kW 용량의 전기모터 2개를 탑재했고, 중량은 2,479kg이다. 배터리를 1회 충전 후 주행거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출시 일정도 공개되지 않았다. 요시다 겐이치로 소니 회장은 "올해 봄 소니 모빌리티를 설립해 전기차 시장에 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AI타임스 제공·정리=이연수 기자